

# “힘들지만... 수천년 이어온 전통 지키겠다”

## 22일부터 한달간 ACC서 초대전 김생수 소목장

“최근 경기 사정이 좋지 않아 작업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전통을 이어갈까라는 생각을 하면 차마 나무에서 손을 떼고 작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숲한 어려움 속에서도 조용히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에 다양한 지원 등 활동이 뒷받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양에서 조선후기부터 20세기 초반 목재 민속 유물 뿐만 아니라 전통 목가구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김생수(66) 소목장. 그는 어릴 적 먹고 살기 힘들어 14살 때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가구 등 목공예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 올해로 40여년째 이조가구 제작 등 작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의 손꼽히는 명인이다.

## 14세 때 서울서 기술 배워 40여년째 장인 외길 올해 전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작품 매진

지난 2007년 담양군 지정 향토무형문화유산 제3호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 활동도 다양하게 펼쳤다. 그는 1999년 옥곡미술관 기획 초대전을 시작으로 2001년 광주·전남 목조형 창립전, 2002년 한국공예대전, 2005년 광주·전남 목조형 협회전, 2006년 광주MBC 초대 전국 명인 명품전 등을 진행했다. 전남대박물관과 광주민속박물관 등지에서 복원 작업 활동도 펼쳤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그는 지난 2002년 제1회 전국 다례문화 큰잔치 다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며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전통 가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현대가구 등 일반 가구를 하다 1971년경부터 전통을 이어야겠다는 생각에 전통가구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전통 가구도 특정 지역만의 기술이 아닌 전라도와 경기도, 경상도 등 전국 8도의 가구 기술을 두루 섭렵했다.

전통 가구는 해당 지역별로 크기와 장식 등 모양이 모두 다르다. 남도 가구의 경우에

는 문목을 귀하게 여겨 문목판 가장자리에 화장 기법을 넣거나 삼감 기법으로 무늬를 덧붙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섬세한 작업이 요구된다.

가구 종류도 다양하다. 그는 2층장과 3층장, 머릿장, 반다지, 돈궤, 전주장, 겨자상, 선비상, 장롱 등 과거 사랑방에 놓인 가구를 만든다.

나무도 국내에서 생산된 먹감나무와 은행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 등 국산나무만 사용한다. 나무 자체의 재질과 향을 되살리려는 남도 가구의 미감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못은 절대 쓰지 않고 장식은 최대한 줄여 사용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는 균형감이 잘 잡힌 아름다운 자태, 간결하고 곡선미가 함축돼 자연미를 이끌어 내는 손끝에 나타나는 나무의 대칭미와 단순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전통 가구 이음새를 잇는 장식 역시 직접 만든다.

나무를 고르고 재단해서 장식하고 도장(옷칠)까지 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몇 안된다. 지역에서는 김 소목장이 유일하다고 해



담양에서 40년째 소목장을 연구하며 제작해 온 김생수씨가 기해년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다.

오세욱기자 dkoso@srb.co.kr



소목장 김생수 씨 작품

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전통 이조가구 방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가구의 기능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디자인, 자재 등 모든 면에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

인다.

나무 하나하나를 깎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목가구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2주 정도가 소요된다.

최근에는 오는 22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초대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쉴 틈 없이 작품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라도 지역 전통 가구 등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4~5년만에 진행되는 초대전인 만큼 기대감도 크다.

그는 “최근 전통가구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 전시회도 자주 갖지 못했는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초대전을 갖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전시를 기회로 전통의 열이 담겨 있는 전통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담양에서 전통 가구 박물관을 만드는 남다른 꿈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동안 이어온 전통 이조가구 작품 뿐만 아니라 전국 8도 가구의 각 시기와 지역별 특징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가구 박물관을 통해 우리 전통 가구를 후대에 알리고 전통을 이어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고 포부를 다졌다.

하지만 고민이 많다.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전통을 이어왔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

그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갈수록 사라져 안타깝다”며 “전통의 맥을 잇고 자 아들에게도 지난 10여년간 전통 가구의 모든 기법과 기술을 전수했지만 현재는 홀로 남아 작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가끔 힘이 들 때면 이제는 정말 전통을 접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남다른 소명감과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지역 근·현대문학사 ‘한 자리에’

## 이승철 시인, ‘광주의 문학정신과 그 뿌리를 찾아서’ 출간 ‘5월시’ 동인과 ‘광주젊은벗들’의 문학운동 집중 조명

광주·전남지역 근·현대문학사가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됐다.

함평 출신 이승철 시인은 최근 ‘광주의 문학정신과 그 뿌리를 찾아서’ (문학들·2만 5천원)을 출간했다.

책은 ‘한국 근현대문학을 개척한 광주·전남의 선각자들’과 ‘잡어문학의 등장과 민족문학운동의 출발’, ‘1970년대 반독재 민족문학을 선도한 광주의 문인들’ 등 5부로 나눠 한국문학의 결정적 순간과 주목해야 할 장면들을 압축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시인은 광주·전남 문인들과 한국 문단사에 얽힌 갖가지 문학적 비화와 에피소드를 발굴한 물론 주요 사진자료를 찾아내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 팩트 체크를 했다.

이 시인은 이 책을 통해 광주·전남의 진정한 문학정신은 무엇인지, 그 영혼과 모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92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년이라는 시대적 공간 속에서 광주·전남에서 출현한 근·현대문학의 실체를 살펴 보되, ‘광주·전남문학’이라는 지역적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문학’ 전체의 차원



이승철 시인



으로 확장시켜 조명했다.

또 작품과 텍스트 위주의 문학사 접근이 아닌, 한 시대의 문학적 출현을 가능케 한 정치사회적 배경과 원인을 추적했다. 그 때 문에 이 책은 당대의 문학적 ‘시대정신’에 방점을 두고, 이를 실천한 ‘광주·전남 문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문학운동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인은 지난 1982년 12월 광주에서 ‘광주젊은벗들’을 결성해 시낭송운동과 벽시운동을 전개하고, 1984년부터 서울에서 ‘자유실천민련협의회’ (자실)와 민족문학 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 등 35년 동안 활발한 문학운동을 펼쳐왔다.

이 시인은 이 책을 통해 광주·전남 근·현

대문학의 효시, 조운 시인이 동아일보에 발표한 최초의 시 ‘불살러주오’의 발표 시기 (1921. 4. 5)를 밝혀냈고, 한국최초의 여류 소설가 박화성의 등단 과정, 희곡작가 김우진과 소프라노 윤심덕의 현해탄에서의 동반자살 배경, 박용철 김영랑 김현구 시인 등 ‘시문학파’ 결성 과정과 박용철 김영랑 시인과 관련한 문학적 비화 등 광주·전남의 문학정신의 거대한 뿌리를 찾아냈다.

특히 광주·전남 현대문학의 아버지, 대형 김현승 시인의 가계사와 동아일보 등단작인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과 ‘어린 새벽은 우리를 찾아온다 합시다’ (1935. 2.27)의 발표지면과 그 발표 시기 (1935년 3월 25일과 3월 27일)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또 대형 김현승 시인의 ‘수색사단’ 문인들의 면모와 에피소드, 대형이 타계하기 6개월 전 광주에서 제자들과 함께 찍은 기념 사진, 1975년 4월 14일, 동아일보에 발표된 대형의 유고시에 얽힌 비화 등도 함께 수록했다.

여기에 1980년대 ‘시의 시대’ ‘동인지운동’의 서막을 열어젖힌 ‘5월시’와 ‘광주젊은벗들’의 문학운동을 한국문학운동사 차원에서 집중 조명했다. 특히 1982년 12월, 박선욱 이승철 조진태 정삼수 장주섭 박정열 박정모 김형수 정병희 이형권 등 젊은 시인들(문청들)의 5월항쟁 체험과 그들이 광주에서 전개한 ‘광주젊은벗들’의 시낭송운동과 시화전, 벽시·노래마당 등 문학운동의 과정과 성과를 정밀하게 추적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북미 정상회담 ‘베트남’ 광주서 현대미술로 맞는다

## ‘신파오, 하노이 아티스트 9인’ 전 나인갤러리, 오는 3월 9일까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으로 정해지면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최근 베트남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나인갤러리는 오는 3월 9일까지 ‘신파오, 하노이 아티스트 9인’ 전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 현대미술을 주도하고 있는 원로작가와 가장 촉망받고 있는 중 단 하오, 응웬 득 프안, 다오 밍 피, 쩐 다이 림, 응웬 티 킵 타이 등 중견작가 9명의 작가 작품 30여점이 선보인다.

베트남 대표 원로조각가로 국제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레 쩐 타잉은 90세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에도 조각과 유화, 레커 페인팅 등 미술 전반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토테미즘에 기인한 그의 작품들은 절제된



종 민 하오, 4세대

선과 부드러운 색상으로 서정적인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다른 작가인 쩌엥 밍 하오는 소수민족의 생활, 전통적 풍경, 사람과 동물 등의 소재를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여성화가인 응웬 티킵 타이는 작품 ‘여인’에서 남편인 레 쩐 타잉과 그림의 소재 뿐만 아니라 유사한 필체의 시인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또 하노이 미술대학 출신 중 40대 유망 작

가로 손꼽히는 응웬 밍 프억은 내면의 소리를 통찰하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화면에 구현해 주목받고 있다.

나인갤러리는 최근 베트남 대표 작가인 부상파이 작고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최초로 부상파이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베트남 작가 작품들은 최근 베트남 경제가 세계적으로 급부상하면서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전통음악·탱화·민화... 무형문화재 기술 전수받아요

## 전통문화관 상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 모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2019 상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통문화예술강좌는 광주시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명품 교육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강좌는 수강생의 수준과 및 기호에 따라 반을 구분, 초보자부터 숙련된 기능을 지닌 수강생까지 기량이 맞게 강좌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강좌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모집 부문은 ▲판소리 초급반·중급반 ▲판소리고법 ▲가야금병창 ▲전통음식의 발효음식과 향토음식 ▲탱화 ▲전통다례 ▲민화 ▲청소년 가야금병창 등 총 12개 강좌이며 각각 강좌마다 15회 운영한다.

강사진은 ▲판소리: 초급반의 박미정(시도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춘향가 전수조

교), 중급반의 방성춘(방야순) (시도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이순자(시도무형문화재 제1호 남도판소리 보유자) ▲판소리고법: 강남중(시도무형문화재 제11호 판소리고법 보유자) ▲가야금병창: 이영애(시도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황승욱(시도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전통음식: 최영자(시도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 보유자), 이에섭(시도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 보유자) ▲탱화: 송광무(시도무형문화재 제21호 탱화 보유자) ▲전통다례: 강예신(한국전례원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위원장) ▲민화: 성혜숙(광주전통민화협회장) ▲청소년 가야금병창: 문명자(시도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등이다.



수강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전통문화관 홈페이지, 직접방문,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수강료는 10만 원(재료비는 별도)이다.

상반기 강좌는 3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1회씩 총 15주에 걸쳐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www.gt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광주전통문화관 062-232-1502.

유대영기자 ydy2132@srb.co.kr

